



강진 최제영



곡성 김광휘



광양 김충권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 김승호



순천 김종영



신안 박응식

보성군농업기술센터 신청사 준공



보성군은 8일 윤병선 군수 권한대행을 비롯한 임명규 도의회 의장, 군의회 의원 농업인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보성군농업기

술센터 신청사 준공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군은 2014년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계획을 수립하고, 국비 40억원

86억 5천만원 들여 지하1층·지상3층 규모 첨단 농업기술의 산실로 자리매김 기대

을 포함해 총사업비 86억 5천만 원을 투자해 지난해 3월 첫 삽을 뜬 후 1년 8개월여 만에 공사를 마쳤다.

건물은 부지 6,072㎡에 연면적 3,566㎡로 지하층·지상3층 규모로 건립됐다. 지하 1층은 군민과 만남·소통의 장소인 대강당, 1층은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농업소득증대를 위한 실험실, 배양실, 농업인 상담실을 설치했으며, 2층은 사무실, 학습단체실, 규방창작실, 3층은 식품가공조리실, 정보화교육장, 세미나실 및 증강당 등으로 꾸며졌다.

건물 신축으로 안전성 확보는 물론 생명농업 실현을 위한 최첨단 시설을 갖추고, 센터의 기능개선을 통한 첨단 농업기술의 산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윤병선 군수 권한대행은 "센터 신축으로 농업인에게 첨단기술을 보급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지역 특화작목 개발과 현장지도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로 '돈 잘 버는 농업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안구일 기자

고흥군, 지역복지사업 평가 우수상

복지전달체계개편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높게 평가



고흥군은 12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7년 복지행정상 합동 시상식에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기반마련' 분야 우수상 및 포상금 2천만 원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이번 평가는 국민의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읍면동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강화사업' 조기 확산 및 성과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군은 부족한 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중심의 복지강화를 위해 전 읍면에 맞춤형 복지체계를 신설

하였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돕고자 읍·면장 및 담당을 포함 읍·면·동장들의 교육 참여율을 높여 전문성 함양 및 시책 발굴을 위한 연구 활동 등을 추진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읍면협의체 도입의 정례회를 통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하여 읍면에 9천6백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 노력해 왔다는 점이 큰 점수를 얻었다.

군 관계자는 "찾아가는 서비스 기반 마련이 되었으므로 이를 견고히 하기 위해 더 노력할 것이며, 특히 지역의 인적·안정성과 협력으로 복지문제를 찾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군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승호 전남동부취재본부장

함평군민 68.2%

"군정 만족한다"

함평군민 10명 중 7명이 군 행정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함평군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에 의뢰해 주요정책사업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군민 68.2%가 '만족한다'로 답해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성별로는 남성이 70.1%로 여성 65.0%보다 높았으며, 연령대에선 60대 이상이 72.2%로 가장 높았다.

함평군이 가장 잘 추진했다고 생각하는 사업에 대한 물음에는 해보 농공단지와 통합평산업단지 조성이 24.6%로 꼽혔으며 거점복지시설 확충 16%, 해안도로 등 관광인프라 확충이 15.1%로 뒤를 이었다.

민선6기 함평군에서 가장 크게 발전한 분야를 묻는 항목에선 농축수산업 분야에 25.7%가 답해 군민 대다수가 종사하는 산업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뒤를 이어 복지 20.9%, 지역개발 13.9%로 나타났다.

향후 발전방향에 대해서 생활안전도시 28.8%, 경제산업도시 27.4%가 꼽혀 안전한 생활환경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지역개발을 바라는 군민들의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안병호 군수는 "그동안 군민의 행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힘 없이 뛰어온 결과에 대해 많은 군민들께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셔서 다행스럽고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함평=김광훈 기자

신안군, 내년 해양수산사업 조기공모 추진

신안군은 2018년도에 추진할 해양수산사업 중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기발주가 가능한 사업을 우선 공모하여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사업은 평소 어업인들의 해상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과 친환경에너지 절감장비 보급사업을 비롯한 관내 새우양식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우양식장 환경개선제 지원사업 등 총 40개 사업에 사업비 184억 9천만원이다.

또한, 신안군은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축제식 해상 양식장 조성, 새우 유용미생물 배양시설, 개체급 양식 등 현안 사업과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창업지원 예산도 함께 반영하게 되었다.

이윤리, 수산분야 5대 전략품종에 대해 수산업 구상사업을 실시할 계획으로 집행된 수산업 활성화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사업신청기간은 오는 29일까지 19일 동안이며, 신안군 관내에 주소와 두고 있는 어업인이나 어촌계,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고 신청자의 관할 읍·면사무소(수산부서)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신안=박응식 기자

장성읍 북부권 보건지소 신축 청신호



보건복지부 예산 국회 통과

장성군이 오랜 기간 공들여 온 '장성읍 북부권 보건지소 신축'에 청신호가 켜졌다.

장성군 관계자는 지난 8일 보건복지부 2018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성읍 북부(성산)지역 복합기능형 보건지소 신축계획이 동력을 얻게 됐다고 밝혔다.

'장성읍 북부(성산)지역 복합기능형 보건지소'는 의료취약지에 거주하는 장성읍 북부권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부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까지 제공하는 복합 기능을 갖춘 의료 인프라다.

장성군은 최근 성산지역 보건지소 국비 지원안이 포함된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국비 6억여원을 포함한 사업비 20억여원을 들여 보건지소를 신축하겠다는 장성군의 계획도 순조롭게 추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장성읍 성산지역은 30여개의 마을에 2,9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면단위 지역과 비교해 실제 인구수가 2배에 달하지만 주민을 위한 의료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으로 꼽혀왔다.

이에 더해 오는 2019년에 150세대 규모의 LH 3차 아파트가 건립되면 거주 인구가 3천백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북부권 의료 인

프라 구축을 위한 대응책을 세우고 보건지소 신축 준비를 해왔다.

장성군은 지난 7월 보건지소 신축계획을 담은 계획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유두석 군수의 지시로 보건복지부와 전남도청을 수차례 방문해 관계자에게 사업 필요성을 설명하고 2018년 예산에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당초 관계당국은 읍면별로 1개 보건지소를 운영하는 원칙에 따라 사업 추진이 어렵다 판단했으나, 향후 인구변화를 고려해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하고, 평소 유두석 군수와 돈독한 관계에 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위원장과 긴밀하게 협조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해왔다.

장성군보건소장은 "보건지소 신축은 국비확보가 관건인 만큼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과 국회 양승조 위원장을 만나 우리군 입장을 자세히 전달한 것이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장성=반정모 기자



'제1회 영광군평생학습축제' 성료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38개 단체 다양한 프로그램 진행

영광군이 지난 8일 영광 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개최한 '제1회 영광군 평생학습 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새로운 것을 알아가는 것은 사람의 가장 큰 기쁨이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어린이 동아리부터 70~80대의 어르신에 이르기까지 관내 평생학습 38개 단체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날 축제는 난타, 댄스, 판소리 공연 등 학습동아리들이 평소 틈틈이 익혔던 평생학습의 결과 발표 경연대회 및 성인문해교육(한글교실) 시화전 등 다양한 전시회로 구성 진행되어 학습이 내리는 겨울의 정취와 함께 학습의 즐거움을

나눴다.

또한 학습동아리 경연대회에서는 70~80대 어르신들로 구성된 영광읍 '시조합창동아리'가 최우수상을, 판소리·민요(마미숙 강사)동아리와 군서면 사물놀이 동아리가 우수상을, 백수를 라인댄스·우도농악 2개 팀과 영광을 더듬어술단(진봉부용) 3개팀이 인기상을 차지했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평생학습 축제는 남녀노소 모든 군민이 주인공이며, 군민 스스로 참여하고 만들어 가는 평생학습 문화를 확산시키는 기회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광주형일자리는 기업의 경쟁력과 지속발전,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삶의 질 향상을 실현합니다.

광주형일자리는 사회적 합의를 통한 상생과 나눔으로 더불어 사는 광주를 만듭니다.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우리시의 정책이며 시민과 함께하는 사회혁신운동입니다.

광주형일자리 선도 모델, 구축

원·하청관계 개혁

빛그린산단에 '친환경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연계한

광주광역시 GWANGJU CITY